

자
유
기
고
②

설특집 농민대동제 '쌀 맛나는 세상' 행사 후기



한농연 울주군연합회
회장
박 태 현

민족의 대명절 설날 대목에 개최된 KBS '쌀 맛나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농연의 주최로 전국의 쌀 홍보가 이루어진데 대해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 비단, 쌀 뿐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홍보 행사가 자주 열리길 기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나름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의 쌀을 홍보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도단위, 광역시 단위의 특산품으로 진열표기 하다 보니 친근감이 떨어진 것 같다.

군이나 구, 읍면 단위의 지역특산품으로 개발되어 그 고장의 이름으로 생산판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행정 단위를 표기하다보니 TV를 시청한 소비자들이나 참석한 많은 손님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리며 연중구입하여 애용할 수 있는 의욕을 느끼도록 하는데는 다소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행사장을 청량리 역 앞 광장에서 하다보니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수 백 개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전국 쌀을 전시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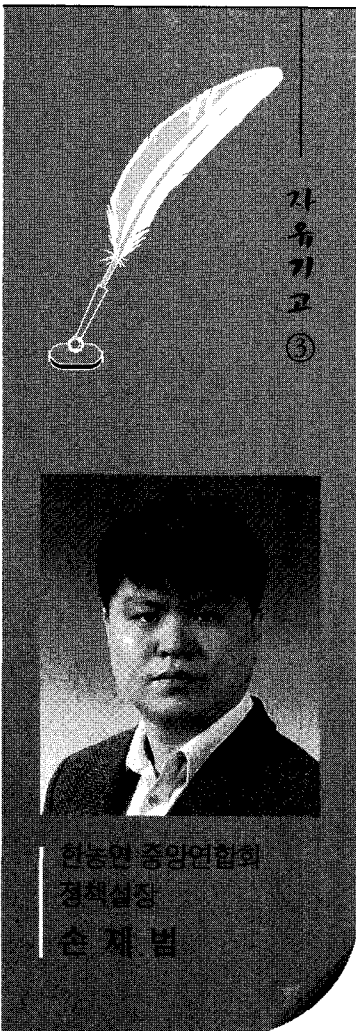
있어 공간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

한 품목마다 5kg, 10kg, 20kg 포대로 100포 정도는 진열되어야 방송카메라를 비출 때 선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인 행사로 실시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민과 도시인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속행사를 개최하여 특산품과 함께 지역의 이미지도 함께 홍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일본 쌀 산업 동향

현재 우리나라는 쌀 시장 추가개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쌀 생산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쌀 생산현장과 소비자 판매현장을 찾아가 우리나라가 참고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연구기관, 농업인단체장, 언론기관종사자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의 주요 농업관련 기관과 고품질 쌀 생산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정책실장을 만나 일본의 쌀 산업 현황과 경쟁력을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쌀 고품질화는 가능